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許 榕*

목 차

I. 緒言

II. 外來語 發音의 實例

III. 結語

參考文獻

I. 緒言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국민들의 언어 생활을 좌우한다. 강단이나 서책을 통해 백 번 외쳐도 방송에서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고정된다. 국민들은 대체로 신문의 표기, 아나운서(announcer)나 성우의 발음, 티브이(TV)의 자막 등을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drama)나 코미디(comedy)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program)은 그 영향이 더욱 지대하다. 좋은 교사가-실제로 우리말 발음에 정통한 교사는 매우 적은 실정이지만-아무리 정확히 가르쳐도 아나운서나 연예인 한 사람이 틀리게 해 버리면 그것으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언론 매체는 용어, 발음, 표기법, 외래어, 문장 부호, 문장 등 여러 면에서 우리말글을 醇化하기는커녕 오히려 惡化를 선도한다고까지 할 만한 상황이다. 방송의 바른 발음은 곧 보도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데, 우리말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정도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방송에 한해 보면, 갈수록 연예인 같은, 언어 훈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인들의 출연 비중이 높아져 가는 탓도 있을 것이다. 전문 방송인보다 연예인의 말버릇이 言衆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니 더 걱정스럽다. 이들이 언중-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 이 점은 작가나 피디(PD)와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따라서 연예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이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도 일부 포함하였다. 게다가 지역 특유의 발음을 교정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대로 전국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반성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적시할 것이니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발음에 한해 본다면, 우리에게 표준 발음의 척도로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표준 발음법'과 현실음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발음 표기는 사전마다 서로 다른 실정이다. 바른 우리말 발음 정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아니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1993년에 한국방송공사(KBS)에서 「표준 한국어 발음대사전」을 펴냈으나 여타의 사전과 다르거나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도 많고, 방송인들도 별로 지키지 않는 듯하다. NHK(일본)나 BBC(영국) 같은 위상을 KBS가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노근리 사건' 보도에서 보인 발음의 혼란상([노근리], [노글리], [노근니] 등)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억양은 너무 恣意的이고 심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어 파괴적인 실정이라서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지경이다.

더 심각한 일은, 외래어에 대한 발음 조항이 없고 따라서 사전에 발음 표시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로 외래어의 발음은 제각각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실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론적인 논의는 깊게 하지 않겠다. 언론 매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방송 언어 점검은 신문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발음에 이견이 적지 않고, 표준으로 삼을 만한 발음 사전도 마땅찮다. 그래서인지 우리말 발음에 대한 논문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우선 방송 언어의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성과 관심을 촉구하고, 발음 규정의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하려 한다. 보여도 들려도 괴로운, 우리말글의 혼돈 상태를 점검하는 첫 단계로, 이 글에서는 먼저 발음의 혼란상을 제시하겠다. 정서법이나 문장(어휘)보다 관심이 덜한 분야가 바로 발음법이기 때문이다.

앞서 필자는 언론 매체에서 범하는 발음의 오류(받침, 모음, 동화, 첨가, 연음, 경음 등), '표준 발음법'의 미비점, 국어 사전마다 상이한 발음 표기 등을 논의한 바 있다¹⁾. 이 글에서는 우리말 발음 중 가장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외래어, 외(국)래어+우리말, 우리말+외국(래)어' 발음의 실상을 보이고, 발음 기준을 모색해 보겠다.

공중과 방송을 대상으로 했는데, 특정 방송이나 특정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중요도와 무관하고 순전히 필자의 개인 사정 때문이다. 제주 지역의 예가 많은 것도 그렇다. 특히 라디오의 청소년 대상 심야 프로그램은 진행자나 초대 출연자의 언어 구사에 문제가 많으나, 자세히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프로그램이 연속되므로 자정이 넘은 경우도 방송 날짜 표시는 다음날로 하지 않았다.

필자 나름대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만의 하나라도 필자가 스쳐 들은 게 있을까 조심스럽다. 그러나 (시)청자(필자) 귀에 그렇게 들렸으면 그 자신이 어떻게 의도하고 발음했냐 하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조사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다 들 수는 없고 극히 일부만 보였으나, 많이 틀리는 말은 그만큼 많은 예를 들었다. 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채널(channel), 날짜, 프로그램, 방송 지역(지역일 경우)과 함께, 확인한 경우, 성의 첫 자음과 직업을 표시하였고, 성명 미확인시나 필요시에는 성별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든 것은 경각심을 촉구하는 뜻이다. 번거로움을 피해 방송 시간은 가능한 한 생략하였으나 필요시 10분 단위로 표시하였다.

발음 표기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국제음성기호나 음운 표기를 하지 않고 [] 속에 한글로 적었다. 되도록 최근 2~3년간의 예를 들되, 1988년 이전의 예는 지금도 규정의 변동이 없으면서 틀린 말을 보일 필요가 있을 때만 간혹 보였다. 이 중 1980년에 조사한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일 것이다. 혼동하기 쉽거나 논란이 있는 경우는 바른 발음을 따로 제시하였다.

1) 許樺a.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b.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c.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서론'과 '결론'은 이 글들을 바탕으로 했으며, 인용 표시는 따로 하지 않는다.

II. 外來語의 發音

우리말 발음에서 가장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외래어이다. 외래어도 어차피 우리말이니 부가 조항이나 예시가 없더라도 '표준 발음법'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발음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논의나 합의도 없다. 게다가 '외국(래)어+우리말(우리말+외국(래)어)'의 경우는 더욱 난감하다. 어디까지를 외래어로 볼 것인가. 외국어와 외래어의 구분점은 어디인가. 사전에 표제어로 올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²⁾ 또한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존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러브(love)'는 물론이고 '러브 송(love song), 러브 어페어(love affair), 러브 식(love sick), 러브 차일드(love-child)'까지 나오는 실정을 감안하면, 참으로 그 기준을 헤아리기 어렵다. 국어사전에 '네이밍(naming), 네이션(nation), 네이처(nature), 네일(nail), 네임(name), 네임 플레이트(name plate)'가 표제어로 올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은가?

방송에서 '톱 스타(top star)'를 왜 '탑 스타'라고 하는 경우는 이를 외국어로 본 때문인가? 이는 당연히 [톱 스타:]라야 한다. '하이라이트(high-light)'는 표기와는 별개로 방송 출연자 모두 외국어 [하일라이트]로 발음하는 실정이다. '외래어 표기법'이 잘못 되었는데? 아니면 원래 표기와 발음은 별개인가?

'한글 맞춤법(1988.1. 문교부 고시)'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장 제1항).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으려면 어떤 소리가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가를 먼저 밝혀야 소리대로 적을 것 아닌가? 이처럼 발음은 표기에 앞선다. 표기와 발음이 전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래)어의 표기 방법 또한 중요하다. 표기 원칙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관용 표기와 차이가 많은 점 또한 혼란스럽다. 버스를 뺄스로, 커피를 커피로, 껌을 껌으로 쓰는 것은, 쓰는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말 체계의 고집이라는 의견도 있다³⁾.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우리말 체계를 잘 조화시킨 외국(래)어 표기법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현존 국어 사전에는 '버스(bus)'('뺄스'는 '버스'의 비표준어), 커피(coffee), 껌(gum)'을 바른 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껌'을 인정한다면 '뺄스'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버스'를 인정한다면 마찬가지로 '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言衆이 '뺄스'라고 하는 상황에! 표기 원칙에 따라 '커피'라 한 것은 안 되고 관용에 따라 '커피'라고 해야 맞는데, 그 경계와 기준이 모호하기 짝이 없다. '카피(copy)'는 '코피'('엡셴스 國語辭典'(수정판 제1쇄)(민중서림, 1991))로 나온 사전도 있다. 모든 말을 일일이 사정하는 일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일관성 있고 치밀한 '외래어 표기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적어야 하며, 예외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慣用'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매머드(mammoth)'라는 표기도 원칙적이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언중이 [맘모스]라고 하는 실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표기이다. '매머드'라고 쓰고 [맘(매)모스]라 읽을 것인가? '배터리(battery)'라 써 놓고 [발데리/뽀뽀리]로 읽는 실정인데, 이를 단순히 '무지한 탓'으로 돌리고 말 것인가? 상어 지느러미 요리인 '샤크스 핀(shark's fin)'은 대개 '삭(삭, 싹)스핀'으로 적고(말하고) 있는데 발음과 표기는 별개인가?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짜장면(酢(炸)醬麪)'은 왜 '자장면'이라야 하는가? '잔폰(ちゃん

2) 이 점에 대해서는, 김연환, "외래어 유감"(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72(1997, 가을號))이 참고된다.

3) 朴容秀, "토박이말과 漢字語",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16호(1982.12.), 10쪽.

ぼん)(=초마면(炒碼麵))'은 왜 '짬뽕'이라야 하는가? 어떻게 쓰든(읽든) 원음에 가깝지 않은 바에야, '짜장면', '짬뽕'이 관용이니 당연히 굳어진 관용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자장면'은 맞고 '잔폰(잠뽕)'은 틀리는가? 실정이 이러니 '자장면'이라고 써 놓고 [짜장면]으로들 읽고(말하고) 있다. 몇 달 전 출간된 「짜장면」이라는 창작집은 이런 의미에서 반가웠다. 이처럼 외래어 표기에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공공성을 띤, 언론에서는 외래어 표기와 이에 따른 발음을 표준(표기)대로 해야 할 것이다. 코미디언(comedian), 익살꾼을 말하는 '개그맨(gagman)'은 틀린 영어이지만⁴⁾, 딱히 대치할 말이 적당하지 않아서인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핸드폰(handphone)처럼, 틀린 말인데도 굳어지는 말들은 순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한편,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영어권의 외국인이 휴대 전화를 '셀(룰러) 폰(cell(ular) phone)'이라 하지 않고 '핸드폰'이라 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외래어는 이미 우리말에 편입되었으므로 그 발음도 우리말법에 맞게 해야 타당할 것이다. 가령 '라디오(radio)'는 [나디오→나지오/나쵸]로, '라이벌(rival)'은 [나이벌]로 발음해야 우리말법에 맞다. 실제로 노인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아웃렛(outlet)'은 최근의 국어 사전에 없는 말이니 외국어라 할 것인지 모호하다. 원래 상품의 판로나 소매점, 대리점을 뜻하는 말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뜻까지 묘하게 변했다⁵⁾. 그런데 표기나 발음에서 '아웃렛[아울렛]'이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판에도 '아울렛'이라 적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예:00.12.31. 현재, 서울 반포 현대 백화점). 방송에서 혹은 일상에서 '아울렛[아울렛]'이라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예:01.1.11.00:00 MBC R 뉴스 7 아나운서(여)), 즉 발음에 편한, 우리말법에 따라 말하게 된다. 그렇다면 '온라인(on-line)'같이 굳은 말 즉 외래어는 당연히 [올라인]이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외래어는 글자대로 또는 원음을 존중하여 발음한다고 발음법에 명시하고 이렇게 홍보·교육해야 한다. “--- 엠비시(MBC) 레이디오(radio)”(00.12.18.16:00 MBC R 노래(합창)) 하는 노래는 재고해야 한다. '레이디오'는 외국어도 외래어도 아닌 말이다.

외국(래)어의 남용 또한 큰 문제다. 더구나 방송에서 “(손님에게 호스트(host)가) 초이스(choice)되려고 ---”(00.3.19.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0 기자)같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외국(래)어를 쓰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사실' 대신 '팩트(fact)'(00.9.28. MBC TV '100분 토론' 토론자들 중)라고 해야 더 유식해 보이고 뜻 전달이 잘 된다고 오해하는 듯하다. 바람직하기는 우리말화해서 즉 순화해서 쓰는 일이다. 이런 점에 대해 연구와 홍보 그리고 언론 매체의 적극적인 호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수부지(高水敷地)'⁶⁾를 '둔치'라 순화하는 일도 언론 매체의 호응 없이는 불가능하다. '윤중(輪中) 중학교'⁷⁾ 같은 학교 이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말(외래어)에 무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곽밥, 빨병'처럼 한자어까지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는 북한의 정책도 참고할 만하다. 다소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가령 '비행기'를 '날틀'이라 하면 안 되는가? 오히려 그 뜻이 명확히 드러나고 누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 아주 미스테리칼(mysterical(?))한(스러운(?)) ---”(01.1.4. KITV '아침 마당' 0 공동 진행자(남))에서는, 외국어를 그것도 잊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쓴, 오용이라고 하기도 힘든, 보기 드문 예를 본다. 구태여 외국어를 쓰려면 'mysterious'라야 한다.

4) “--- 'gagman'이라고 하면 '입에 재갈을 문 사람' 정도밖에는 아무 뜻도 없다. 그것도 'gagedman'이라고 해야만 그렇게 된다.”(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 현암사, 2000, 16쪽)

5) '아울렛마트, 아울렛 백화점' 같은 이상한 말에 대해서는, ibid., 441~442쪽을 참고 바람.

6) 일본식 한자의 조합어다.

7) 일본식 한자어인 '輪中堤'는 '방죽, 돌레 둑, 섬둑' 등으로 순화할 말이다.

꽤 희화적인 최근의 예를 하나 든다. “지난 여름 --- 황교선 고양시장이 ---” “건전한 러브”는 반대할 수 없지만 미풍양속을 해치는 ‘러브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고 격양됐던 집회 참가자들(필자 주: 러브 호텔 반대 시위자들)이 말에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렸다.”⁸⁾ 필자 역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기사 제목대로 ‘러브 행위 = 부적절한 관계’란 말인지, ‘러브’에는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란 말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말의 혼란과 오염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외국(래)어의 남용은 자연히 오용을 수반한다. ‘스트로(straw)’를 ‘스트롱’이라 하거나 ‘스프링클러(sprinkler)’를 ‘스프링쿨러’라 하는 일을 가끔 본다. 빨대는 세계 빨아들이는 것이고 撒水는 찬물로만 한다는 뜻인가?

ㅅ 물산의 ‘래미안’은 발음이 비슷한 한자 ‘來美安’과 프랑스어 ‘Les Miennes(나의 것)’를 합친 것이고, ㄱ 건설의 ‘미라주’도 한자 ‘美羅住’와 영어의 ‘Mirage(신기루, 환상)’를 결합한 것이라 한다(00.12.8. 동아일보). 이런 식으로 한자와 외국어를 결합하려 하는 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도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현행 ‘현지원음주의’는 정말 불편하고 문제가 많은 표기 방법이다.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 방법과 함께, 지금의 표기 방법을 심각하게 재고하여 고쳐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점 일부를 아울러 검토해 보겠다.

표기의 오류에 따라 자연히 발음까지 틀리는 말 중 방송에서 자주 들리는 말을 얼른 몇 가지 예시한다(오른쪽이 맞는 말이다). ‘넌센스(nonsense)→난센스, 레즈비언(lesbian)→레스비언, 레포트(report)→리포트, 로보트(robot)→로봇, 로션(lotion)→로션, 로켓(rocket)→로켓, 로타리(rotary)→로터리, 루즈(rouge)→루주, 리더쉽(leadership)→리더십, 마사지(massage)→마사지, 미스터리(mystery)→미스터리, 바리케이트(barricade)→바리케이드, 배터리(battery)→배터리, 비즈니스(business)→비즈니스, 파리(Paris)→파리, 색서폰(saxophone)→색소폰, 셔츠(shirts)→셔츠, 슈퍼마켓(supermarket)→슈퍼마켓, 스폰지(sponge)→스펀지, 슬(스)라브(slab)→슬래브, 시삽(sysop)→시삽, 신나(thinner)→시너, 쉐(센)타(center)→센터, 아취(arch)→아치, 액센트(accent)→악센트, 앙콜(encore)→앙코르, 윈도우(window)→윈도, 판넬(panel)→패널, 팜플렛(pamphlet)→팸플릿, 호스테스(hostess)→호스티스’ 등 많은 말이 틀린 표기로 인해 자연히 발음까지 그릇되는 실정이다. ‘로봇(robot)이, 로봇을’이라고 해야 할 말을 ‘로보트가, 로보트를’이라고 하니 이어지는 말까지 틀릴 수밖에 없다. ‘cut(커트, 컷)’은 예외적인 말이다⁹⁾.

“--- 상당히 넌센스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00.5.12. SBS TV ‘토요스페셜-아름다운 성’ ㄱ 공동 진행자(남))의 예는 우리말과 외래어의 합성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여준다. ‘넌센스’가 ‘난센스’임은 차치하고라도, ‘난센스하다’가 옳은 말인가? “빠른 성공을 원한다면 스피드하게 시작하라!”¹⁰⁾에서는, ‘스피드(speed)하게’라야 하는가 ‘스피디(speedy)하게’라야 하는가? ‘아이러니(irony)한’ 것인지 ‘아이러니칼(ironical)한’ 것인지, 관련 조항에서 이런 단어의 바른 말을 제시해야 한다.

8) 동아일보(00.12.8.) ‘500자 세상’

9) ‘컷(cut)’은 지금 두 가지로 표기하고 있다(‘외래어 표기 용례’).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미용, 운동(정구, 탁구, 골프, 야구 등)에서는 ‘커트’요, 인쇄물에 넣는 작은 삽화와 영화, TV 촬영에서는 ‘컷’이라 한다(‘국어연구원’에 의함-운동 중 야구만은 ‘컷’이라고 한 사전(‘민중’)도 있는 실정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는,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하고 ‘컷(cat)’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예외적으로 ‘커트, 컷’으로 구별하여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으니, 얼른 시정해야 한다. 이 점은 별고에서 재론한다.

10) 문화일보(00.10.3.), ‘ㅅ 출판사’ 광고.

외국(래)어 표기 또한 특히 언론에서 유의해야 한다. 가령 'M. Thatcher(영국의 전수상)'는 [θ---] 이므로 '새처'라야 하는데, 구태여 예외적으로 '대처'라고 적을(부를) 이유가 없다.

이제 방송에서 자주 들리는 외래어를 중심으로 바른 발음과 문제점을 검토하겠다.

① 가스(gas) : "가스비(-費)도 적게 들겠네."(00.10.30. MBC R ㄱ 보일러 선전 ㄱ 텔런트(여). [까스]라 하지 않은 일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껌(gum)'에서 보듯이, 외래어를 발음할 때 첫소리를 경음화하는 일반적 현상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스비(-費)도 적게 드는구나!"(00.12.9.17:10 MBC R ㄱ 가스 보일러 선전 성우(여))

② 게임(game) : '달러(dollar)'를 [딸러(라)]로 발음하는 식의, 즉 첫소리를 경음으로 내는 일은 특히 외래어에서 많이 보는데, 외국어든 외래어든 틀린 것이니 빨리 고쳐야 한다.

"--- 세계 게임 시장에서 ---"(00.10.1. K1TV 뉴스9 ㄱ 기자)

"--- 생존 게임 ---"(00.10.30. K2TV '웹 매거진' 출연자들. [게임]이라고 하지 않아 반가웠다.)

"게임 매니아들이 ---"(00.12.15. MBC TV '웹 투나잇' ㄱ 리포터(여). '매니아'에 대해서는 '⑪ 매니아(mania)'에서 후술함)

③ 곤로(焔爐, こんろ) : '풍로'나 '화로'로 바꿔 써야 할 말이다. 「표준 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 이하 「국어연구원」), 「국어대사전」(국어국문학회, 민중서관, 2000) 등 '곤로'가 표제어로 나오는 사전에도 발음 표시가 없다. 즉, 글자대로 읽으란 뜻이다. 우리말법을 따르지 않고 글자대로 읽어야 한다면 이미 외래어가 아니다. 외국어이다. 곤로가 사라져 가니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골로], [곤노], [곤로]' 등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 실정이다. 곤로 수리공이 소리칠 때도 '[골로, 곤노, 곤로] 고쳐요, 심지 갈아요.' 하고 제각각으로 외쳐 이상하게 들렸던 기억이 새롭다. 외래어니까 우리말법에 따라 당연히 [골로]라야 하고 사전에도 발음 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④ 다운로드(download)·업로드(upload) : 컴퓨터(computer)의 보급으로 생긴 말이다. 디지털(digital) 세상에서 계속 들어야 할 말이다. '다운, 로드, 업'이 다 외국(래)어라 그런지, 방송에서는 '[다운로드], [업로드]' 같은 동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어서 발음하다 보면 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말법으로 발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운로드](00.7.29.20:50 K1R 프로그램명 미상 출연 ㄱ 기자(여))

[다운로드](00.7.14. MBC TV '웹 투나잇' 해설 성우(여), 외국어도 아니고 외래어도 아니게 발음했다.)

⑤ 달러(dollar) : "환율은 미국 달러화(-貨)의 값 아니겠습니까?"(98.12.21. K1TV '뉴스 라인' ㄱ 기자, '달러화'라야 옳다. 그나마 [딸라]라고 하지 않아 다행이다.)

"달리는 자동차에 엄청난 달러[딸러]가 버려지고 있습니다."(00.9.30. K1TV 대중 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 목소리 출연 성우(남). (자막의) 표기는 '달러'인데 읽기는 [딸러]라고 하니 표기와 발음이 따로따로인 실상을 볼 수 있다.)

⑥ 돈(豚)가스(とんかつ(pork cutlet)) : '돼지고기(너비) 튀김(밥)'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우리말로 굳어졌다고 본다. 여하튼 [돈까스]라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

⑦ 라면(拉麵(麩)·老麵(麩)) : 중국식 국수 '라미엔(拉麵)'이 일본을 거쳐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이 '라면'이다. 여기에서 예로 든 이유는, [나면]으로 발음해도 되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층에서는 [나면]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면]이 우리말법에 맞아 발음하기에 훨씬 편하기 때문임은 자명하다.

⑧ 러너(runner)·러닝 셔츠(running shirts) : '러너'를 [란나]라고 하는 일이 많으며, '러닝 셔츠'는

[런(란)닝 샤프]라 말한다. 둘 다 일어의 영향인데, 후자는 줄여서 [난닝구]라 했던 말이다. 우리말화한 것을 우리말답게 발음하지 않고 日語式으로 요즘은 英語式으로 발음들 하는 일은, 확대하자면 자주 정신의 결여라고까지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방송이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 란나 1·2루 되었습니다.”(80.7.29. TBC TV ‘스포츠 뉴스’ 봉황 대기 야구 중계). 야구의 走者를 이르는데 [란나]라 하는 것은 일본식 발음의 영향이다. 스포츠 중계(해설)가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20년 전은 물론 지금도 일본식 어휘나 발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바람직하기는 ‘주자’라야 한다. 구태여 ‘러너’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⑨ 러브 호텔(love hotel) : “러브 호텔[르러브 호텔]”(00.10.15.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출연자들, 00.10.19. K1TV ‘뉴스 라인’ ㄱ 기자(남), 마치 영어처럼 발음했다. 외국어와 외래어는 구분해야 한다.)

⑩ 로비(lobby) : “로비[르라비]”(00.10.15.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개그맨(남) 등 출연자들, 그나마 [르로비]도 아니고 [르라비]라 하면 외국어를 하는 것이다.)

-성(性) 로비·옷 로비 : ‘옷 로비’는 지금 [온로비], [온노비], [올로비], [온로비], [온노비] 등으로 발음하는 상황인데, ‘표준 발음법’에 확실한 규정이 없는 탓이다. [온로비]는 힘들고 어색한 발음인데 우리말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온로비→온로비→올로비]라 하는 일이 많았다. 이처럼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발음 현상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성 로비’는 [성노비]라 하면 안 되는가? 방송에서도 제각각인 것은, 영향이 큰 언론 매체에서도 외래(국)어 또는 우리말+ 외래(국)어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심지어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진행자와 해설 성우가 달리 발음하는 실정이다.

이제 혼란한 실상의 일면을 보인다.

① 성 로비:[성노비](00.5.9. K1TV 뉴스9 ㄱ 기자)

② 옷 로비:[온로비](99.12.20. K1TV ‘뉴스 라인’ ㄱ 공동 앵커, 00.7.17. K1TV ‘제헌절 기획-법은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 해설 성우([온노비]와 혼용하였다.)

[올로비](99.12.3.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99.12.20.22:20 K1TV ‘뉴스 라인’의 중요 뉴스 예고 ㄱ 공동 앵커(아나운서, 여), 00.7.17. K1TV ‘제헌절 기획-법은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 ㄱ 사회자)

[온노비](00.7.17. K1TV ‘제헌절 기획-법은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 해설 성우, [온로비]와 혼용하였다.)

[온노비](00.10.16.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00.10.17.09:20 K1TV 뉴스 ㄱ 기자(남))

①1 마니아(mania) : ‘-狂’(사람)을 나타내는 말(buff, bug, whiz kid, wizzard 등)을 나쁜 뜻의 ‘狂人’이라는 의미로 말한다 해도 ‘메이니액(maniac)’이라야 함¹¹⁾은 차치하고라도, ‘매니아’는 ‘마니아’라 해야 옳다.

“매니아 세상”(00.10.15.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예고) ㄱ 기자(남)와 자막)

“게임(game) 매니아들이 ---”(00.12.15. MBC TV ‘웹 투나잇’ ㄱ 리포터(여), 자막에도 “매니아”였다.)

①2 마르크스(K.Marx) : ‘마르크스’를 ‘맑스’, ‘마르크시즘(Marxism)’을 ‘맑시즘’이라 하는 일이 많다.

“맑스(?)[맑스]주의”(00.9.28. MBC TV ‘100분 토론’ 토론자 ㄱ 변호사와 ㄱ 교수)

“마르크시즘[마르시즘]”(00.10.15.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ㄱ 성우(남))

①3 매머드(mammoth) : 흔히 ‘맘모스’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어 사전¹²⁾에는 ‘매머드’로 나오는데, 관

11) “‘mania’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신적인 ‘현상’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이다. 주관적인 생각은 별로 없이 마구 군중에 휩쓸려 끌려 가는 ‘행동’이다. ‘미친 사람(狂人)’ --- ‘maniac’이라면 산발을 하고 알몸으로 날마다 지하철에서 회칼로 살인을 벌이는 정도는 되어야 인정을 받는다.”(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 현암사, 2000, 215~227쪽, passim)

1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주)두산 동아, 1999),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민중서관, 2000), 『국

용과 현실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1. 이하 「한글학회」)에는 '매머드'인데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관용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문제와 연관되는 말이다.

“맘모스”(99.10.21. K1TV 뉴스9. 보도 기자와 자막)

“매머드”(99.10.21. MBC TV '뉴스 데스크' 보도 기자와 자막)

⑭ 바흐(J.S.Bach) : 00.7.29.20:40 K1R(프로그램명 미상) 출연자 ㅈ 기자(ㄱ 신문 연예부)는 '바흐, 바하'를 혼용했는데, '바흐'가 맞다.

⑮ 배터리(battery) : “배터리[밭배리, 배터리]”(00.10.10. MBC R ㄹ 배터리 선전 ㄱ 방송인(남녀), 두 가지 발음을 혼용하였다.)

⑯ 버스(bus) : “ 시내 버스 요금이 ---”(00.7.31.14:20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 ㅂ 아나운서(여))처럼 요즘의 방송에서는 '버스'라고 옳게 말하고 있다. 물론 바른 표기도 '버스'인데, '뻐스'라고 쓰고 읽으면 안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는 말이다.

⑰ 보일러(boiler) : 흔히 '보일러'라고 하는데 '보일러'가 옳다.

⑱ 비즈니스(business) : “(반짝 가수들의 활동은) 비즈니스 ---”(00.3.5. MBC TV '시사 매거진' ㄱ 기자, 틀린 말이지만 흔히 '비즈니스'라 하는데 이 기자는 '비즈니스'라 하니 특이하다. 자막은 “비즈니스”라고 맞게 썼다. 00.3.3. MBC TV '시사매거진 2580' 예고 자막은 “쇼 비즈니스의 냉혹성”이라고 틀리게 썼다.)

⑲ 사이버(cyber(netics)) : “사이버 범(:)죄 ---”(00.10.3. K1TV 뉴스9 제주 뉴스 ㅈ 앵커(남), 같은 날 19:30 K1TV '뉴스 네트워크' 제주 뉴스 ㅁ 아나운서(여), '범죄'는 단음어이다.)

“사이버 명함을 (경찰청) ---”(00.10.9. K2TV '웹 매거진' 리포터(여), 00.10.24. K1TV 뉴스9 ㅎ 공동 앵커(여))

⑳ 센터(center) : “라디오 정보 센터[센터]”(00.9.28.10:30 K1R '라디오 정보 센터' ㅅ 진행자(남), [센터]에 가깝게 발음했다.)

“(유람선에) 온라인 인터넷 센터도 ---”(00.10.10.09:40 K1TV 뉴스 ㅇ 기자, [센터]에 가깝게 발음했다.)

㉑ 소파(sofa) : “먼지 쓴 이런 침대니 쇼파니 ---”(98.12.22.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 진행 ㅈ 아나운서(여), '소파(sofa)'는 긴 안락의자요, '쇼우퍼(chauffeur)'는 운전사다. 아나운서(announcer)까지 '소파'를 '쇼파'라고 그릇 발음하는 것을 들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㉒ 솔로(solo) : “솔로[솔로] 홈 런(home run)”(00.10.6.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ㅇ 기자, '솔로'는 이태리어인데 '솔로'를 [솔로]라 하는 것은 영어식([sólou])으로 읽은 것도 아니고, 우리말의 경음화 현상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㉓ 쇼(show) : “국내 최초의 인텔렉추얼 쇼(intellectual show)!”(00.10.9.21:50 K1TV 프로그램 예고 아나운서(성우(?), 남), '인텔렉추얼 쇼'도 어색한 말이지만 '쇼'는 '쇼'라야 한다.)

㉔ 스포트라이트(spotlight) :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스파트르라이트]에 관심을 ---”(00.10.13. MBC TV '콘서트 초대' 진행 ㄱ 가수(남), [스파트르라이트]는 외국어이지 외래어-우리말이 아니다.)

㉕ 스노 타이너(snow tire) : '스노우 타이어'는 틀린 말이다.

㉖ 시랜드(sealand)·에버랜드(everland) : 외국어가 아니니 우리말로 또 글자대로 읽어야 한다. MBC R '여성 시대, 싱글빙글 쇼,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진행자들은, 적어도 필자가 들을 때는, 대체

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 「뉴에이스 국어사전」(혁신판)(금성출판사, 1995), 「새 국어사전」(개정판 3쇄)(동아출판사, 1996), 「새 국어사전」(제4판 1쇄)((주)두산 동아, 2000),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금성출판사, 1988(제8판)), 「옛센스 國語辭典」(수정판 제1쇄)(민중서림, 1991.이하 「민중」) 등.

로 [에벌랜드]라 하여 외국어와 외래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에버랜드[에벌랜드]에서 ---”(00.2.29.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〇 공동 진행자(남), 00.7.18. MBC R ‘여성시대’ 〇 공동 진행자(여)([에버랜드]와 [에벌랜드]를 혼용하였다.), 00.7.28.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ㄷ 공동 진행자(여))

“에버랜드[에버랜드]”(00.7.16. K2TV ‘추적 60분’ 보도 PD, [에버랜드]라 발음하여 좋았다.)

“시랜드[셀랜드] 참사를 ---”(00.7.17.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〇 공동 진행자(남))

㉗ 에센스(essence) : 사전의 표제어는 ‘에센스’인데 사전 이름은 ‘民衆 ㅅ센스 國語辭典’(1991. 민중서림)이니, 이를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 난감하다.

㉘ 에프엠(FM) : “KBS 제2FM 윤ㅇㅇ입니다.”(00.10.19.22:30 KBS R 제2FM 〇 진행자(여), ‘에프-’에서 윗입술을 물고 [f] 발음을 했다.)

㉙ 온라인(on-line) : 국어 사전에는 발음 표시가 없으니 글자대로 읽으란 뜻인지 동화를 해서 발음하라는 뜻인지 모호하다. 사전에 발음 표기가 없으면, ‘표제어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와 순수히 연음화 현상만 적용되는 경우’(‘국어연구원’),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음이 어렵지 않은 경우’(‘한글학회’), ‘원음 즉 표제어의 글자와 다르게 발음되지 않는 말’(‘민중’) 등을 말한다. 특히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음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는 ‘한글학회’의 일러두기는 너무 모호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표준 발음법’에도 외래어 발음에 대한 조항이 없다. 지금은 [온라인], [올라인], [온나인] 등으로 제각각 발음하는 실정이다.

ㄱ [온라인]:00.7.29. K1TV ‘취재파일 4321’ ㄱ 기자, 00.10.9. K2TV ‘웹 매거진’ 공동 진행자(아나운서, 여),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program)의 ㄱ 공동 진행자(아나운서, 남)는 [올라인]이라고 하여 발음의 혼란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00.10.24. K1TV 뉴스9 ㅎ 공동 앵커(여).

ㄴ [올라인]:00.7.2. K1TV 뉴스9 ㅂ 기자(남), 00.7.14. MBC TV ‘웹 투나잇’ 해설 성우(여), 00.8.15. EBS TV ‘엄마도 네티즌’ 보조 진행 ㄱ 개그맨(남), 00.8.21., 00.10.9. K2TV ‘웹 매거진’ 공동 진행 ㄱ 아나운서(남), 같이 진행하는 아나운서(여)는 [온라인]이라고 발음했다., 00.9.25. MBC R ㅋ 증권 선전 성우(여), 00.10.7. K1TV 뉴스9 ㅂ 기자(남), 00.10.10.09:40 K1TV 뉴스 〇 기자, 00.10.14. K1TV ‘경제 전망대’ ㄱ 기자(남), 00.10.22. K1TV 뉴스9 ㄱ 기자(남), 00.11.24. K1TV 뉴스9 ㄱ 기자(남).

‘온라인’을 대다수가 [올라인]이라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본다. 국어 사전에도 오르지 않은 말인 ‘아웃렛’을 ‘아울렛[아울렌]’이라 쓰고 읽는 일은 우리말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온라인’ 같이 굳은 말 즉 외래어는 당연히 우리말법을 따라 [올라인]이라야 할 것이다.

㉚ 자장면(酢(炸)醬麵) : 전술했듯이 ‘짜장면’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한글학회’에는, ‘자장:면’은 ‘짜장면’의 원말이라 풀이하고 있다.

㉛ 카페(café) : “명석 씨가 운영하는 산장 곁 카페에 ---”(00.9.28. K1TV ‘제3지대’ 해설 ㅂ 성우(남), ‘카페’의 ‘페’를 [fe]로 발음하였다. 작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카페’는 ‘카페’의 잘못이다. ‘카’와 ‘까’의 차이는 표준음과 현실음의 괴리이기도 하다. 적어도 방송에서는 표준을 지켜야 한다. 더욱이 [fe] 발음은 이를 몇 내기로 착각한, 그릇된 풍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

㉜ 커피(coffee) : 99.10월 ㄷ 식품의 커피 선전에서, ‘커피’의 ‘피’를 〇 배우(남)는 [fi]로, ㅎ 배우(남)는 [pi]로 발음하였다. ‘커피’는 외국어인가, 외래어인가? 당연히 우리말 [커피:피]로 발음해야 한다.

유사한 예로 “기본 그래픽(graphic) ---”(00.7.9. Oun TV 〇 교수(여)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 ‘픽’의 ‘표’를 [f]로 발음한 일을 들 수 있다. 외국어와 외래어의 구분이 모호한 데다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다. 가끔 듣는 일이지만, ‘팬(fan)’(01.1.6. MBC TV ‘뉴스 데스크’ ㄷ 공동 앵커(여)), ‘패션(fashion)’의 ‘표’를 [f]로 발음하는 것은 외국어로 읽는 셈이다.

그러면 샹송(chanson) 가수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00.7.18. K1TV 'TV 문화 기행'에서 해설자 ○ 아나운서(여)는 '프'를 [f]로 발음했다. [에디뜨 뻬아프]로 읽은 것도 아니다. 이 점은 숙제이나, 우리말로 적거나 말할 때는 우리말로 발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덧붙여, "다음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컴퓨터 용어는? 커피 ---"(00.12.10. MBC TV '생방송 퀴즈가 좋다' 자막)는 '카피(copy)'라야 옳다.

㉓ 컬러(color) : 흔히 '칼라'라 하는데 '칼라(collar)'는 '깃'이다.

㉔ 콤팩트(compact) : "컴팩트로 간단히 화장도 합니다."(00.3.19.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 기자)

㉕ 크리스털(crystal) : "크리스탈은 --- 일반 유리는 성분 유리와 틀립니다."(98.12.22. MBC TV '테마 기획 정보뱅크' 해설자. '틀립니다'는 '다릅니다'라야 한다.)

㉖ 테헤란로(Teheran路) : 필자의 다른 글¹³⁾에서 논급한 대로, [테헤랄로]나 [테헤란로]가 아닌 [테헤란노]가 바람직하다. 이제 '표준 발음법'에도 외래어 또는 외래어+우리말의 합성어에 대한 기준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㉗ 텔레비전(television)·티브이(TV) : '테레비'가 옳다는 의견도 있다. 어차피 영어 발음과는 다르니 '테레비'라는 외래어를 쓰자는 주장이다. "'Television'의 영어 발음 한글 표기는 대학 교수의 글에서만 무려 열세 가지가 수집되었는데 영어 음성학 전공자인 필자가 보기에 어느 것도 영어 발음 답지 않다. 지금 여기서는 필자가 영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외국어를 쓰지 않고 우리말이 된 '테레비'(외래어)를 쓴다. --- '外來語' 표기법을 '外國語' 표기법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많은데, 어서들이 迷妄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는 것이다¹⁴⁾.

어떻게 써 놓고 읽든 원어와 같을 수는 없거니와 '텔레비전'이나 '티브이'는 외래어다. 그런데 '테(테)레비'는 음절을 줄이려는 일어의 수용이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텔'에 강세를 준 다든지 '브이' 발음시 윗입술을 문다든지 하여 외국어로 발음하려 들지만 않으면 되지, '테레비'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테레비 보시는 ---"(80.5.25. MBC TV '연예 수첩' ○ 기자) 식의 말이 만연했었으나, 지금은 많이 좋아져 다행이다.

㉘ 톱 (스타(top star)) : "탑 스타"(00.7.16. MBC TV '출발! 비디오 여행' ㄱ 아나운서(여), 외국어가 아니고 외래어인데 영어식으로 발음을 했다. 표기도 '톱'이므로 당연히 [톱 스타:]라야 한다.)

"탑 탤런트(talent) 김○○ 씨는 ---"(00.12.3.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해설 ㄱ 개그맨(남))

㉙ 팩스(Pax) : 'Pax[L=peace]'의 표기는 '팍스'이므로 발음도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한다.

"--- 팩스 아메리카의 위상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00.11.11. K1TV 뉴스9 뉴욕=○ 기자)

㉚ 프로(procent) : '프로(%)'는 '프로센토(procento)'의 준말인데, 지금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만으로는 완전한 뜻이 되지 못하므로 '퍼센트(percent)'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 투자 덕분에 가게 매출이 35프로로 늘어---"(00.4.8. MBC TV '경제 매거진' 해설자(목소리 출연 아나운서(남)), '덕분'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논하겠다.)

"--- 27프로나 높습니다."(00.7.30. K1TV '추적 60분' ㅎ PD)

덧붙여, 요즘 '퍼센트(percent) 포인트(point)'라는 말을 방송에서 자주 듣는다. 가령 '35%'는 '35퍼센트'면 족하지 '35퍼센트 포인트'라 할 필요가 없다¹⁵⁾. 한술 더 떠서 '9.5점'을 '9점 5포인트'라고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13) 주 1)-a. '동화' 항.

14) 유만근, "우리나라 방송 언어 발음 문제", 『새 국어생활』(국립국어연구원) 5권 4호(1995. 겨울) 70쪽.

15) 포인트(point)는, 「금성」에만 '기준 주가 지수와 비교 주가 지수와의 차를 세는 말'이라 하고 '5~ 하락하다.'의 예를 들고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말에서 "0.5퍼센트 포인트 높아진 ---"(01.1.27.11:40. CBS R

"2퍼센트 포인트가 상승되었습니다."(00.10.7.09:35 K1TV 제주 뉴스 아나운서(남))

"10프로 포인트 이상 ---"(00.10.21.07:10 MBC TV '피자의 아침' 중 '광주·전남 지역 뉴스' ㄱ 앵커(남))

④① 프로그램(program) : "프로그램"(00.5.9. MBC TV 'PD 수첩' 진행 ㅅ 아나운서(남), 출연 PD들은 전부 "프로그램"이라 하였다.)

④② 프로 레슬링(pro(fessional) wrestling) : "프롤레슬링"(00.7.22. K1TV 'VJ 특공대' 진행 ㅎ 아나운서, '르'이 첨가될 이유가 없으니 부주의의 결과이다. 해설 ㅂ 성우는 '프로레슬러(pro(fessional) wrestler)'로 제대로 발음하였다.)

④③ 핀란드(Finland) : "핀란드[필란드]에서 자일리톨(Xylitol) 껌---"(00.11.29. MBC TV 껌 광고 성우(여), 사전에는 발음 표기가 없으니 [핀란드]인지 [필란드]인지 모호하다. 국호 같은 고유명사는, '태해란로'처럼, 우리말 화하는 것보다 원음에 가깝게 불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어찌하든 [필란드]보다는 차라리 [핀란드]가 바람직하다.)

④④ 하이라이트(high-light) : "스포츠 하이라이트[하일라이트]"(00.7.10., 00.7.11. MBC TV '스포츠 하이라이트' 진행 ㄱ 앵커, 00.7.13. MBC TV 프로그램 예고 아나운서(여), 외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기와 발음이 다를 이유가 없다.)

"(남북한 친선 탁구의) 하이라이트[하일라이트]는 ---"(00.7.28. K2TV '뉴스 투데이' 스포츠 보도 기자)

"하이라이트[하일라이트]"(00.10.15.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ㅈ 공동 진행자(남))

④⑤ 할리우드(Hollywood) : "할리웃"(00.10.14. MBC TV '피자의 아침'의 '할리웃 통신' 자막과 리포터(?) (여), '할리우드에서'와 '할리웃에서'는 발음이 달라진다.)

④⑥ 휴대폰(携帶phone) : "휴대폰"(98.5.29. K1(?)TV '백만인의 선택' 진행 ㅅ 아나운서(남)는 '폰'의 '포'를 [f]로 발음하였다. 외국어로 말한 것인지 묻고 싶다.)

④⑦ 현지원음주의에 대하여 : "텐안문"(00.6.4.12:00 K1TV 뉴스 ㅂ 아나운서와 베이징 = ㄱ 기자, 자막은 '천안문'이었다. 그러나 정확한 표기는 '텐안먼'이다.), "저우룬파(周潤發)"(00.8.18. 동아일보) 같은 표기와 발음을 듣는데,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 공동 문어인 한자문화권에서 꼭 그 나라 발음대로 적으려 하는 일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을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장제스(蔣介石), 장쉐량(張學良), 장쥘린(張作霖), 장징궈(蔣經國), 리덩후이(李登輝), 라오닝(遼寧)省, 텐진(天津), 허베이(河北)省, 저장(浙江)省, 베이징(北京), 난징(南京)' 등을 놓고 앞말과 뒷말 중 어느 것이 빨리 이해되는지 보라. 만약 앞말이 편하다면 괄호 속의 한자는 왜 필요한가? 클린턴은 이름 옆에 영어를 병기해야 이해가 빠르냐? '주룽지' 총리는 '주용기(朱鎔基)' 총리와 다른 사람인가? 일본, 중국 등이 우리 나라의 고유 명사도 제 나라 발음으로 읽고 심지어 '문교부'를 '文部省'으로까지 부른 것은 어찌 해석해야 좋은가? "(이북에 대한 우리의 기사에서) '리분회, 리조 실록, 로동 신문'과 같이 적은 것이 여러 번 보인다. --- 그러나 북녘에서는 '임수경'을 '림수경'으로 쓴다.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글에 자신이 없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홀이름씨는 소리대로 적음이 온 세계의 관례이기에 중국의 서울은 '북경'이 아니라 '베이징'으로 적어야 마땅하다. 일본의 땅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소리대로 한글로 적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¹⁶⁾는 의견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성대(漢城大)나 경성대(京城大)가 아니라 서울대로 불러주세요"(서울대 관계자, 24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 대학들이 서울대 명칭을 이상하게 사용해 애로가 있다며)¹⁷⁾ 하는 말이 시사하는 바를

뉴스),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은) 최소한 0.5퍼센트 포인트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01.1.31.09:30 MBC TV 뉴스 보도기자(남))식의 표현은 굳더더기라고 생각한다.

16) 김영환, "이름을 한글로 적기", 한글학회, 「한글 새소식」, 232호(1991.12.), 6~7쪽.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로 그치고, 경청할 만한 의견을 한 구절 소개한다.

1939년 조선총독부가 당시 경성방송국에 날벼락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동경, 대판, 이등박문, 풍신수길 ---'을 죽지 못해 일본한자음으로 바꿔 읽기 시작한 것인데, 방송에서 지금까지 日本漢字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 어쨌든 이웃 나라간에 현지원음 사용은 식민지가 아닌 한, 동서양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다. 현지원음주의라는 것은 일찍이 문화교류가 전혀 없던 지구 반대편 나라끼리, 편리한 편 어형을 도저히 달리 찾을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채택하는 가장 불편한 방법이다. 만 나라 예를 보면, 가령 '버마'는 영어 신문이나 방송에서 오늘도 '버마'이고 '미얀마'가 아니며,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미얀마'가 아닌 '비르마니(Birmanie)'이다. --- (남북한 두 군데를 제외하면 세상에 유례없는) 조선총독부 언어학(?) 현지원음주의를 아직도 받들어 모시며 영무새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수치요 언어학적 몰상식이니, 지금부터라도 제발 일본이나 중국의 고유명사를 한국한자음으로 읽도록 신문방송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언어란 원래 '恣意的(arbitrary) 음성기호 체계'이기 때문에 개념상 동일한 고유명사라도 두 언어간에 그 발음이 같아야 할 필연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1939년 동기불순하게 조선인한테 일본어를 강요하려는 조선총독부의 비언어학적 강제명령에 따라 시작된 日本漢字音 사용(즉, 동경, 이등박문 --- 대신 도쿄, 이또 히로부미(필자 주:현행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도쿄, 이토 히로부미') ---)과 거기에 유추하여 최근에 누구의 강요도 없건만, "남경, 주용기---"까지 "난징, 주룽지---"로 적고 영무새 놀이를 하는 中國漢字音 사용방식은 만 나라 외래어 표기 일반 관례를 너무 모르고, 유별나게 정 반대로 하는 것이다. 전면 한글 전용을 하는 날이 온다 해도, --- 내내 한국 한자음으로 음성생활을 해야 사실상 내 몸이 편하고 남한테 몇몇한 것이다. 이 점을 碧潼, 昌城 황소라도 알아듣도록--- 간곡하게 귀뜸하는 바이다¹⁸⁾.

㉔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에 대하여 : 최근, 맥쿤-라이샤워(Mcune-Reischauer)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로마자 표기법'을 새로 정했다. 다음의 글은 그 성격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안은 '영문자 표기법'이 아니라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사실도 확실히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로마자는 전세계에 퍼져 있으며 나라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번에 새로 만든 로마자 표기법으로 써 놓은 'geobukseon'은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던 습관으로 어떻게 해몽을 하여 읽든지 간에 '거북선'으로 읽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이다.¹⁹⁾

위의 취지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선후가 바뀐 희망 사항에 가깝다고 본다. 로마자 표기법의 목표는, 외국인더러 우리에게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 읽었을 때 어느 표기가 가장 원음에 가까운가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외국인이든지 그들 나라의 체계대로 읽어서 원음과 비슷한 발음이 나오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의 로마자 표기 체계를 홍보한다 하더라도 그걸 따로 기억해서 따라주기를 바란다는 일 또한 앞뒤가 바뀐 것이고 효과를 거두기 힘든 일이니, 그야말로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로마자는 로마인이 사용하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정이니 외국어 중 특히 세계 공통어라 할 수 있는 영어의 발음에 중점을 두고 표기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일관된 표기법의 지속'을 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

17) 00.11.25. 동아일보 A6면 '말 말 말' (원문대로임)

18) 유만근, "방송언어 발음문제-97 가을 KBS뉴스를 듣고-", "영어-마오리어 교섭에서 보는 외래어 수용모습", 한국교원기자회, 「말과 글」, VOL.73(1997. 겨울號), 53쪽, 79쪽.

19) 김광해, "새 로마자 표기법이 최선의 대안"(00.8.3. 문화일보, 독자 투고)

한다. '태릉, 사랑' 등에서 보듯이, 우선 우리말의 발음이 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운동 선수들의 유니폼(uniform)에 적힌 이름의 로마자 표기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운 실정은 누차 지적된 바이다.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쓰고, 이름은 붙여쓰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 이런 표기 방식을 잘 지키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게다가 같은 글자인데도 표기법이 다른 경우도 많다. 같은 박 씨인데도 박찬호(야구 선수)는 'Park', 박세리(골프(golf) 선수)는 'Pak'이라 적고 있다. 심지어는 부자(또는 부녀)가 성을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필자의 예를 들어보겠다. 필자는 수십 년 전부터 문교부(당시)의 표기법에 따라 'Heo, Chun'으로 이름을 적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성(許)이 군대의 명찰에는 'Hur'로, 대학의 증명서에는 'Hu'로 적혔다. 발음으로는 'Hur'이 가장 近似하겠으나 표기법에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 점은 별도로 논할 계획이다.

덧붙여, TV 자막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I ♥ KUKAK"(00.10.10. MBC TV '퓨전 콘서트' 자막)처럼, 무엇 때문에 멀쩡한 우리말을 아무 의미 없이 소리나는 대로 로마자 표기를 하는지, 왜 이런 우스운 걸멋(?)이 들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나마 "I ♥ GUGAK"이라야 '로마자 표기법'에 맞다. 신문 또한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S&P'(SMILE & POLITICS란다)(00.12.26. 동아일보 A5면) 같은 이름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시사 상식' 위에 'SISASANGSIK'이라고 써 넣는 일(00.5.16. 濟大新聞 630호 6면)은, 'SISASANGSIK'의 뜻이 '시사 상식'이란 말인지, 명색이 대학 신문인데 한심하기까지 하다. 이 점 또한 따로 검토하겠다.

Ⅲ. 結 語

현행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항). 그런데 '표준 발음법'에 치밀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해 혼란을 야기하는 점도 많으므로, '표준 발음법' 조항을 좀더 자세하게 하고 예시 단어도 보완하여 논란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외래어 발음에 대한 명시적 규정(예시)을 두어 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²⁰⁾.

여기에 언론 매체 종사자와 지식인의 무관심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말글의 길잡이로 할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지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지식인과 교사에 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제작 뿐 아니라 보도까지 하는 PD와 방송 기자는 특히 늘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고 틀린 부분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나운서들도 정확한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무분별한, 가수들의 이른바 '토크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구성 작가 뿐 아니라 드라마 작가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원고를 보고 읽는 해설자(성우, 아나운서 등)나 극에 출연한 텔런트의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리포터를 비롯한 출연자 선정에도 신중을 해야 한다. 경비 때문인지 방송 전문인보다 리포터를 많이 쓰는 풍조도 바뀌어야 한다. 방송 출연자는 바른 발음과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당연히 출연을 삼가야 한다.

20) 현행 '표준 발음법'의 보완점은 별도로 논한다.

어린이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바른 발음이 더욱 절실하다.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자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야 하고 특별한 노력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오래전부터 방송을 보거나 들으면, 틀린 발음과 어휘에 신경이 곤두서고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우리말에 관심이 없고 규준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작금의 언어 생활을 보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외래어의 발음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필자 사정으로 검토하지 못해 아쉽다.

외국어와 외래어를 혼동하는 데 따른 발음의 혼란은 참 크다. 외국(래)어의 오(남)용 또한 문제이다. “기분이 업(up) 되었다.”는 등 “경영 마인드(mind)가 뛰어나다.”는 등 이상한 외국어를 오(남)용한 말을 흔히 듣는다. 정부(투자) 기관도 여기에 한몫 거든다. 단적인 예로 담배 이름을 들 수 있다. ‘백양, 아리랑 --- 새마을, 청자, 환희, 은하수, 거북선, 태양, 장미, 술, 도라지, 한라산, 하나로, 시노브로(84, 100), 한마음’ 등 중 지금도 남아있는 담배(이름)는 ‘술, 한라산, 하나로, 한마음’ 정도이다. 그나마 ‘술’은 켈런 가운데 가장 싸다(00.1.4. 현재, 1포 200원). ‘88 플러스(Plus), 88 디럭스(Deluxe), 88 라이트(light), 88 골드(Gold), 88 멘솔(menthol), 엑스포(EXPO), 오마 샤리프(OMA SHARIF), 글로리(GLORY), 심플(Simple), 디스(플러스)(THIS (Plus)), 라일락(멘솔)(lilac (menthol)), 콤팩트(COMPACT), 겟투(Get 2), 에세(ESSE), 리치(RICH), 타임리스 타임((timeless) time), 마운트 클래스(MOUNT CLASS)’ 등의 외국어 또는 로마자로 된, 뜻도 아리송한, 묘한 이름의 담배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 설령 우리 나라 담배가 모두 수출용이라 해도 이런 이름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리치’를 피우면 부자가 되는가 아니면 부자가 피우는 담배가 ‘리치’인가? 발음이 어려워서인지 ‘오마 샤리프’를 흔히 ‘오막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우리 나라 담배는 담배인삼공사(전 전매청)에서만 만든다.

‘학교II’(99.12.19. K1TV 극 예고 아나운서)는 [학교 투:]로 읽어야 하는가? “--- KBS 1·2[케이비:에스 원투:]---”(00.12.19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 ㄱ 기자(여))는 바르게 읽은 것인가? 이른바 지식인과 방송인이 오도하고 있는 이런 풍조는 참으로 빨리 고쳐야 할 일이다.

바른 우리말글을 쓸 줄 모르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시)청자를 모욕하는 일이고, 자기 직업에 대한 모독이다. 나아가,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도 반드시 언어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틀리거나 어색한 말(이를테면 ‘기반(基盤)하다. 너무 (예쁘다). (한국인이 미국에) 들어가다. --- 라고²¹⁾, (물울) 먹다. 민초(民草), 바라지고[望] 있다. 바탕하다. 보다 (높이), 보아지다. 본인(本人), 부락(部落), 소개시키다. ---에 있어서의, 女性스럽다²²⁾, 예상되고 있습니다. 있음으로 해서, 자리매김하다. 저희 나라, 전향적, 지

21) 특히 ‘---라고’ 같은 이상한 말버릇은 빨리 고쳐야 한다(“언어란 --- 전달 체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99.1.10. EBS TV 한국방송대학교 국어학 강의 교수(여)). “이데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 --- 만 남은 있다라고 ---, --- 왔다라고 ---,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 (인간의 감정과 열정과 욕망에) 억압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00.4.30., 00.7.9. EBS TV ‘철학 에세이’ 〇 교수(여)).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죠.”(00.3.30. MBC R ‘싱글벙글 쇼’ 공동 진행 ㄱ 씨(여)). “동일한 내용의 석장의 유서를 쓴다라는 것은 ---, --- 이번 경우에 유족이 없다라는 것을---”(00.3.30. K2TV ‘추적 60분’ ㅎ PD(기자(?))). “종교는 자신의 --- 문화다.”라고 말했습니다.”(00.5.16. MBC TV 마감 뉴스 도쿄=H 기자) “---했다라고, --- 시기가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00.10.4. K1TV ‘길종섭의 쟁점 토론’ 토론자인 ㄱ 대학 〇 교수) 등 이상한 풍조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 직접 인용절에 ‘라고’가 쓰일 수 있으나 전통적인 쓰임이 아니며 품위도 없다. “‘인용’이란 것도 없는, 단순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표현할 때도 ‘~다라고’, ‘~다라는’ 따위로 표현해서 듣는 사람을 역겹게 한다.”(이수열, “해괴하게 쓰는 인용 조사 ‘라고, 라는’”, 한국교원기자회, 『말과 글』, VOL. 71(1997. 여름號).)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라고’, ‘-고’, ‘-하고’의 바람직한 쓰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론하겠다.

22) “일본스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00.4.21. K1TV ‘취재 파일 4321’ 〇 기자)처럼 ‘-스럽다’가 아무 때나

속 가능한. (외국과) 틀리다. ---하는 데 있어서, ---함으로 인해서' 등등)을 방송 종사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빈번하게 써서 우리말글을 오도하는 바가 너무 크다. 바른 우리말을 위해서는 소위 지식인과 언론 종사자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바른 외래어 발음을 위해서는 우선 순수한 우리말 발음의 정립이 시급하다²³⁾. 가령 "12·12[시비 시비] 쿠데타 이후---"(00.8.6.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ㅅ 성우)처럼, '12·12'만 따로 [시비 일리]가 아닌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가능한 한 발음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방송에서는 이를 지켜야 한다. '웃 로비'는 지금 [으로비], [온노비], [울로비], [온로비], [온노비] 등 제각각으로 발음하는 상황인데, '표준 발음법'에 외래어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는 탓이다.

'慣用'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지만, 먼저 그 말이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에 구분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외래어라면 우리말법에 따라 발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동화, 두음법칙 등을 따라야 하고, 외(국)래어+우리말, 우리말+외국(래)어의 경우에도 이에 준해야 자연스럽다. '로비'를 [르라비]라 한다면 이미 외래어가 아니다. 그리고 '표준 발음법'에 확실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아웃렛'은 좋은 예이다.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니 외국어라 할 것인데, 이 말을 방송이나 일상 생활에서 우리말법에 따라 말하게 된다. 대부분의 간판에도 '아웃렛'이 아닌 '아울렛'이라 적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같이 굳은 말 즉 외래어는 당연히 [울라인]이라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조사해서 힘들여 쓴 글이므로, 이 글에서 적시한 구체적인 용례는 우리말글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바른 생각은 바른 언어 생활에서 나온다. 이를 선도할 사람은 언론 종사자들이다.

올바른 말글 생활은 올바른 삶의 출발점이다.

參考文獻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 (주)두산 동아, 1999.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
동아일보(00.12.8., 0012.26.)
문화일보(00.10.3.)
신기철·신용철,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금성출판사, 1988(제8판).
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 현암사, 2000.
이은정, 「우리말 발음사전」, 백산출판사, 1992.
濟大新聞(00.5.16. 630호)
—— 편집국 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편집국 편, 「뉴에이스 국어사전」(혁신판), 금성출판사, 1995.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개정판 3쇄), 동아출판사, 1996.

남용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23) '노근리, 선릉, 학여울' 등의 발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주 1)-a. '동화' 항).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제4판 1쇄), (주)두산 동아, 2000.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수정판 제1쇄), 민중서림, 1991.
- 한국방송공사(KBS),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 어문각, 1993.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1.
- 김광해, “새 로마자 표기법이 최선의 대안”(00.8.3. 문화일보, 독자 투고)
- 김연환, “외래어 유감”(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72(1997. 가을號).
- 김영환, “이름을 한글로 적기”, 한글학회, 「한글 새소식」, 232호(1991.12.), 6~7쪽.
- 朴容秀, “토박이말과 漢字語”, (한국교열기자회)「말과 글」, 16호(1982.12.), 10쪽.
- 유만근, “우리나라 방송 언어 발음 문제”, 국립국어연구원, 「새 국어생활」 5권 4호(1995. 겨울).
- a. “방송언어 발음문제-97 가을 KBS뉴스를 듣고-”,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73(1997. 겨울號), 53쪽.
- b. “영어-마오리어 교섭에서 보는 외래어 수용모습”, 위책, 79쪽.
- 이수열, “해괴하게 쓰는 인용 조사 ‘라고, 라는’”,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 71(1997. 여름號).
- 許椿a.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b.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c.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